

가정 내 아동학대의 발생 원인

◆ 부모의 자녀 양육에 대한 지식 부족

- 부모가 자녀의 발달적 특징과 그에 적합한 양육 방법에 대한 지식 부족

배고픔을 참지 못하고 칭얼대는 영아에게 “애는 왜 이렇게 참을성이 없어... 조금만 배가 고프면 난리야.”라는 부모, 친구와 다툰 자네에게 “왜 친구와 사이좋게 지내지 못하지? 정말 창피해 죽겠다.”라는 부모

⇒ **자녀 양육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서 나타나는 자녀 비난 행동입니다.**

◆ 부모의 그릇된 아동관

- 자녀를 부모의 소유물로 간주하는 사고
- 자녀를 독립된 존재로 인정하지 못하는 사고

내가 낳고 기르기 때문에 자네는 내가 생각하는 대로 행동해야 한다고 강요하는 부모, 나와 자네는 한 몸이기 때문에 내 생각과 자네의 생각이 같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부모

⇒ **그릇된 아동관으로 아동을 학대 할 수 있습니다. 자네와 나는 각각 독립된 존재입니다.**

나와 자네는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동을 존중하는 것입니다.

◆ 자녀에 대한 지나친 기대

- 자녀에 대해 물질적, 정서적으로 많은 지원을 하고 지원한 만큼 기대 수준을 충족하기를 원하는 것
- 부모가 자신이 가진 재능만큼 자네도 재능을 발휘해야 한다는 사고
- 자신이 이루지 못한 사회적 지위를 자네가 이루어냈으면 하는 대리 충족적 사고

어릴 때부터 많은 자극을 주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왔기 때문에 내 자네는 모든 분야, 특히 학업 부분에서 뛰어나야 한다고 생각하는 부모, 부모인 내가 사회적으로 인정받기 때문에 내 자네도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아야 한다는 부모

⇒ **지나친 기대로 자네에게 압박을 가할 수 있습니다. 자네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.**

◆ 부모의 성장 배경

- 신체적 체벌이 허용되는 가정에서 성장한 부모
- 아동을 존중하지 않는 문화에서 성장한 부모

자네가 자신의 말을 듣지 않았을 때 매를 든다든가 · 벌을 세우는 것 · 집 밖으로 내쫓는 것 등의 체벌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부모, 부모가 지시한 것에 자네가 의견을 제시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부모

⇒ **이 중 많은 부모는 자신이 아동기에 체벌을 받거나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어려웠던 가정에서 자란 경험을 가진 부모입니다. 내가 자란 환경을 아동에게 그대로 강요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.**

◆ 부모의 낮은 자아존중감, 정서적 불안, 사회적 고립감

- 부모가 자신에 대해 자신감이 없는 경우
- 부모가 여러 가지 원인으로 정서적 만족감이 떨어지고 불안감을 느끼는 경우
- 사회성 부족으로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없는 경우

자신이 사회적으로 실패자라고 생각하는 부모, 다른 사람과 관계 맺기가 어려워서 가정에 고립되어 있는 부모

⇒ **부모가 정서적으로 불안하고 안정되어 있지 않으면 자네에게 긍정적인 양육 태도를 보이기 어렵습니다.**

나의 정서적 불안정을 자네에게 쏟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.

◆ 부모의 감정 조절의 어려움

- 분노, 좌절 같은 부정적 감정을 스스로 조절하기 어려운 경우

어떤 일 때문에 촉발된 부정적 감정을 조절하기 어려워 자네에게도 그 부정적 감정을 그대로 표출하는 부모, 감정적으로 악화되면 자네의 행동도 꼬투리 잡아 화풀이하는 부모

⇒ **내가 감정 조절에 어려움이 있는지 반성해 봅시다. 만약 감정 조절이 어려운 경우라면 그 원인을 찾아보고 감정 조절을 위한 방법을 찾아보세요.**